

충장으로 한복판서 열린 '인생 최고의 대로' 결혼식

충장축제 일환... 시민이 하객으로
中 왕즈상 부부 10년만 백년가약
작년부터 총 4쌍 평생 소원 이뤄
“부부 앞날 행운 가득하길” 기원

“15년 전 우리는 광주에서 처음 만났고, 10년 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10년을 함께 하며 슬한 고난을 겪겠지만,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동구 충장로 혼수의 거리 일대에서는 장대비 속 이색 길거리 결혼식이 펼쳐졌다.

우산을 쓰고 바쁜 걸음을 옮기던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춰선 채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힘찬 환호와 박수로 응원을 보냈다.

이날 열린 결혼식은 광주 동구가 이번 충장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인생 최고의 대로’ 결혼식으로 신랑 왕즈상(40)씨와 신부 황슈아이(45)씨가 주인공이다. 이들 부부는 같이 살게 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식을 올리지 못했다. 신랑과 신부 모두 태어난 중국을 떠나 광주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중 15년 전 지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처음 만나 한눈에 반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은 치르지



광주에 거주 중인 한 중국인 부부가 6일 동구 충장로4가 혼수의 거리에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일환으로 열린 ‘인생 최고의 대로’에서 하객들로부터 축하 꽃을 받고 있다. 동구가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부부,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등을 위해 마련한 이색 결혼식이며 축제 관광객이 하객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건호 기자

못했지만, 이들은 10여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광주에서 아들을 낳았다. 어느덧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도 이날 부모님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사진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신부 황슈아이씨는 이번 충장축제에서 면사포를 쓰며 소원을 이루게 됐다.

황슈아이씨는 편지 낭독을 통해 “우리는 15년 전 알게 돼 10년 전 연을 맺게 됐다. 그동안 긴 고난을 거쳐오며 드디어 평

온한 일상을 맞게 됐다. 우리는 10년의 고난을 함께 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수십년을 함께하며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속스러운 듯 웃어 보이던 신랑 왕즈상씨는 “세 식구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며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준 하객들과 모든 시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거리 한편에서 결혼식을 지켜보던 가족

과 지인들은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이 흐뭇한 듯 생각 웃기도,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부의 모친인 정이엔메이(71)씨는 “딸이 예쁜 드레스를, 사위가 멋진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며 “이날 결혼식을 도와준 충장축제 측과 광주시민, 충장로 상인들에게 감사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부의 여동생인 황연(37)씨는 직접

무대에 올라 현숙의 ‘월화수목금도일’을 유창하게 불렀고, 지역 예술단체도 식전후로 뮤지컬 공연을 펼치며 결혼식의 흥을 돋웠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지만수(60)·김정화(50) 부부가 충장로 혼수의 거리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신랑 지만수씨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신부 김정화씨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사연을 담아 신청했다.

이번 결혼식 프로그램 ‘인생 최고의 대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등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커플을 대상으로 사연 신청을 받아 2쌍의 커플이 선정됐다. 동구는 지난 충장축제부터 결혼식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며, 총 4쌍 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성혼 선언을 맡은 임택 동구청장은 “부부의 추억이 있는 충장로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고,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지난 시간처럼 앞으로 부부의 삶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정일성 충장로1·2·3가 상인회장도 축사를 통해 “충장축제가 진행되는 광주 도심의 북판에서 시민들이 하객으로 참여하는 성대한 결혼식에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며 “부부의 앞날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 소방공무원 급식 환경 열악... 전국 최하위

급식 단가 4000원에 그쳐
식단 관리 영양사도 없어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급식 단가는 4000원대에 그치는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의 식단을 관리할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방서 급식 단가는 4068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A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심지어 전남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기도 했다.

광주지역 소방서의 경우 한 끼 급식 단가는 6056원으로, 영양사는 총 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한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한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성아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향년 95세

1944년 교사 강압에 일본 떠나
손가락 절단·발목 등 부상 당해
고향서도 갖은 모욕·수난 겪어
“평생 가슴 못 펴 뒷길로 살아”

일제강점기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김성주(사진)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5일 오후 김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6일 밝혔다.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권유와 강압으로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만 14세였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비행기를 만드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이었다. 굶주림 속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철판을 자르는



선반 일을 하던 중 왼쪽
검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당시에는 겨우 목

숨은 건졌지만 무너지는 건물더미에 의해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다. 해방 후 수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로 결혼해서도 남편으로부터 온갖 인신모욕과 구박을 들어야 했다.

김 할머니는 생전 “내 평생 가슴 펴고 큰 길 한번 다녀 보지 못하고, 뒷길(뒷길)로만 살아왔다”고 말했다.

뒤늦게 용기를 내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소송에 나섰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패소했다.

그 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0월 일본 소송 원고들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 측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자, 김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들은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을 압류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3월 기업들의 기부금을 겨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강제동원 제3차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김 할머니는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반대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여러 이유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지난해 5월 정부의 제3차 변제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압류도 취했다.

김 할머니의 유족으로는 2남 2녀가 있으며,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오후 1시다.

한편 할머니의 동생 김성주 할머니도 1945년 2월 도야마에 위치한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동원됐다. 김성주 할머니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배상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윤준명 기자**

고흥 교차로서 트럭과 경차 충돌... 2명 사망

고흥에서 1톤 트럭이 경차와 충돌해 2명이 숨졌다.

6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12시 3분께 트럭을 운전 중이던 A(74)씨가 고흥군 점암면 왕복 2차선 도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포두면으로 진입하려고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과 모닝 차량이 모두 반파됐고 경차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숨졌다.

경차 운전자 남성 B(71)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했고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C(74)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교차로의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을 시도해 당시 포두면에서 점암면으로 진입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

전남경찰청 전국 4번째로 중국산 CCTV 많아

전남경찰청 89개·광주경찰청 4개
박정현 의원 “보안 취약, 국산 지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대가 중국산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전남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 중에서 4번째로 중국산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에는

89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117개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이다.

이 중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서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 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